

“수십년치 도의원 사업비 전수 수사해야”

“3만원보다 교사 책임 전가 문제”

전북교총, 체험학습비 재검토 촉구

전북도의회-전 교육감 갈등 격화

“1,600억 사업비 바로잡겠다” 논란

도의회 “의정활동 모독” 강력 반발

“도교육청 예산 현미경 검증” 맞붙

[속보]전북도의회가 도 교육수장이자 지역 기관장을 대상으로 협박성 성명서를 발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차체에 도의회 최근 4년 치가 아닌 수십년치 도의원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전호성 교육감의 ‘도의원과 관련한 지난 4년간 1,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바로잡겠다’는 발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성명에는 “우리 의회는 도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을 현미경 검증할 것이며, 이번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도의원 일동은 “전 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대의기관인 도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중대 도발이며, 지난 4년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정당한 의정활동을 통해 모독한 처사다”며 “교육청 측은 전 교육감의 발언과 관련, 그동안 의원들이 학교와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예산 심의를 진행했고 교육청이 검

토·편성한 예산이 4년간 1,600억 원이었다며 ‘부적절한 예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청의 의지도, 진정성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결국 그릇된 발언의 실마리를 전 교육감 스스로가 제공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고 운을 뗐 뒤 “특히 도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도의원 요구 사업’이라 낙인찍고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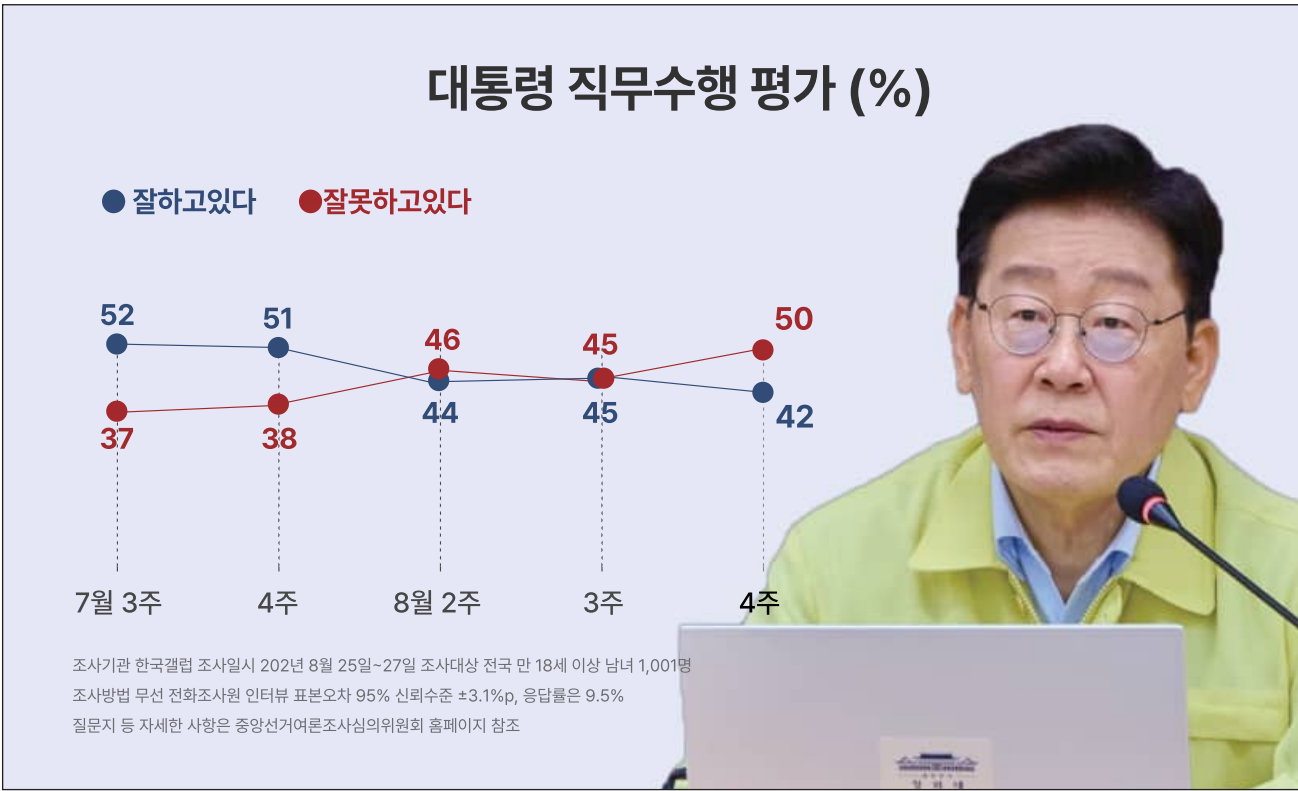
적절한 예산’으로 매도하는 것은 의회의 본질적인 존재 가치를 왜곡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 “전 교육감의 안하무인격 행보를 보면, 협치의 동반자인 도의회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소통의 문도 닫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혼계하듯 발언하는 태도에서는 오만함마저 묻어난다. 의회 경시 풍토가 극에 달한 작금의 현실에 참담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경고했다.

특히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뼈아픈 책임을 물을 것이다”며 전 교육감의 일방통행식 불통 행정을 거듭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김희수 도의회 의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반쪽을 샀는데 이에 김 의장은 “성명서 발표는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남 의장단 회의에서 숙고 끝에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고 반박했다.

/장정철 기자



李 지지율 42%... 취임 후 최저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2%로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0%로 5%포인트 상승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전북타임스>

李대통령 지지율 42%로 ‘뚝’...부정평가 50%

갤럽 조사 부정평가 5%p 급등

민주당 지지율 39% 추락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 높아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2%로 폭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0%까지 급등했다.

지난 2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사흘간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보다 3%포인트 급락한 42%로 나왔고 부정평가는 50%로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추락하다가 지난 주 1%포인트 오르면서 반등하려는 기대와 달리 다시 추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역시 부정평가도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역대 대통령의 직무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 선에 달한 시기는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취임 두 달 무렵인 2022년 7월 둘째 주(긍정 32%·부정 53%, 이준석 대표 당원권 정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년 4개월째 조국 사태가 발발한 2019년 9월 셋째 주

(40%:53%),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1년 5개월째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은 2014년 7월 넷째 주(40%:50%)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7%)·성향 진보층(68%)에서, 부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87%)·보수층(74%)에 많다.

중도층은 긍·부정(41%:49%) 차이가 크지 않고, 지지 정당 없는 무당

(無黨)층에서는 부정론이 우세하다(24%:58%).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50%대)에서 높고, 20대(31%)에서 가장 낮다.

지역별로는 호남만 긍정평가가 높았고, 다른 지역은 모두 부정평가가 높았다. 서울은 긍정 37%로, 대구경북(26%)에 이어 두번째로 긍정평가가 낮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7%), ‘검찰 권한 축소’,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분인 재판 회피’(이상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국방/안보’, ‘독재/독단’(이상 5%), ‘통합·합치 부족’(4%) 등을 꼽았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이외 정당/단체 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6%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해 30%대로 추락했으며, 국민의힘은 전주와 동일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 미래 먹거리 ‘메가프로젝트’ 시동

3천억 이상 사업 10건 발굴

정부 대형 프로젝트 연계

그린수소·로봇·바이오 집중

7개 분야 추진단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7대 SEED 프로젝트,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의 대형 국가프로젝트 투자 확대 및 미래 첨단기술 선점 정책에 발맞춰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전략사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고정삼 경제부지사 주재로 '전북 메가프로젝트 발굴 추진단' 킷오프 회의를 열고, 정부 정책과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연계한 전북형 메가프로젝트 발굴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단은 전북의 산업구조와 미래 경쟁력을 바꿀 대형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기획하기 위해 구성됐다. 정부의 국가재정 투자 방향과 123대 국경과제, 7대 SEED 프로젝트 등 정책 흐름을 분석해 전북의 강점과 접목하고, 이를 국가사업과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북의 3대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그린수소·첨단로봇·농생명바이오와 규제특례·R&D·재정 등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연계한 성장엔진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강점 기반 그린수소 생산·운송·활용을 잇는 관련산업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현대차 투자와 연계한 상용차·특장차·탄소소재·이차전지 등 기존주력 산업

과 피지컬 AI의 접목, 농생명·의료·바이오와 AI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연구개발·상용화 등이 주요 발굴 방향이다.

추진단은 △경제·일자리 △미래산업 △농생명 △문화·체육·관광 △새만금·해양수산 △균형발전SOC △환경·교육 등 7개 분과로 구성된다. 도와 도의회,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기업,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 구상부터 구체화까지 힘을 모은다.

각 분과는 정부 정책과 투자 방향을 토대로 전북의 산업·자원·연구개발 기반과 맞닿은 사업을 찾아내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국가정책 부합도 등을 따져 사업계획을 다듬는다.

기존에 중단·보류됐던 사업도 달라진 정책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다시 살피고,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보완·고도화한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3,000억 원 이상 규모의 메가프로젝트 10건 이상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단을 운영한다. 발굴된 사업은 전북연구원과 출연기관, 기업·전문가 등의 검증을 거쳐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중앙부처 정책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국가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AI 혁명을 비롯한 산업 대전환기에는 정부 정책을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북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사업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도시가스 소매요금 9.66% 인상

4인가구 월 최대 574원 부담

도민 부담 고려 인상폭 최소화

전북도는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주택용 도시가스 공급비용(소매요금)이 평균 9.66% 인상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50㎡를 사용할 경우 월평균 추가 부담액은 전북도시가스 437원(4만 8,655원→4만 9,102원), 군산도시가스 574원(4만 8,635원→4만 9,209원), 전북에너지서비스 279원(5만 1,288원→5만 1,567원)이다.

산업용은 1㎡당 전북도시가스 4.74원(958.48원→963.22원), 군산도시가스 9.9원(966.9원→976.8원), 전북에너지서비스 5.5원(1025.54원→1031.04원)이 각각 인상된다.

이번 조정은 인건비 상승과 농어촌 지역 배관 투자 확대, 판매열량 정산금 등 공급원가 증가분을 반영한 것이다. 도는 외부 전문기관의 원가산정과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공급비용을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산정된다. 전체 요금에서 도매요금이 약 90.5%, 소매 공급비용이 약 9.5%를 차지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하면서도 도민의 가계 부담과 도시가스사의 안정적 공급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비용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한편,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과 에너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의 에너지 이용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 수조과장은 "공급비용 증가에 따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도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북자치도, 가축방역 '우수'...선제 대응 빛났다

농식품부 특별평가 우수상 수상

구제역 9년 연속 비발생

ASF 추가확산 차단 등 성과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특별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지자체가 추진한 가축방역 우수사례와 주요 가축전염병 방역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역 효과와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 지자체 노력도, 시책의 창의성 등 정성평가와 질병별 방역실적에 대한 정량평가가 함께 이뤄졌다.

전북은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초동대응,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역시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먼저 구제역(FMD)은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통해 9년 연속 비발생

을 유지했다. 올해 초 정읍과 고창의 양돈농장 2곳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신속한 초동대응과 방역조치로 추가 확산을 막아 2주 만에 상황을 마무리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정밀검사, 일제소독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추진해 발생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였다. 도내 발생 건수는 2023~2024년 18건에서 2024~2025년 11건, 2025~2026년 9건으로 감소했다.

지역 실정에 맞춰 추진한 전북형 방역시책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식용란 출하용 종이합판 공급, 농가별 이동통신 구획화, 사슴농장 구제역 일제접종, 야생조류 퇴치기 권역화 운영 등을 통해 농장 단위의 방역 취약요인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방역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방역체계도 강화했다. 전국 최초로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를 축산분야로 활용해 기존 인력을 방역업무에 재배치하고, 수의직 퇴직공무원으로 구성



<사진=전북도>

된 민간방역지원단을 운영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시·군 재정부담 완화도 성과로 꼽힌다. 도는 살처분 처리비용의 국비 지원기준 완화를 이끌어 2024~2025년 시·군이 부담해야 할 처리비 88억원 가운데 29억원을 국·도비로 지원했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수상은 축산농가와 시군, 방역기관, 생산자단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와 지역경제를 지킴"이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 소나무재선충 8배 증가...집중 방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8일 완주군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전북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집중방제 전략을 점검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피해 현황과 지역별 하반기 방제 계획을 공유했다. 현장 애로사항과

기관 간 협조사항을 논의해 효율적인 지역별 방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논의와 컨설팅도 진행했다.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은 2022년 2,000여 본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 6,000여 본으로 크게 증가했다. 도는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전년보다 약 2배 늘어난 157억 원을 투입해 수종 전환 1,270ha, 예방나무주사 1,674ha, 감

염목 등 고사목 50만여 본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피해유형과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제에 집중한다. 집단·반복 피해지역은 단목방제에서 수종전환 중심으로 전환해 반복적인 감염원을 차단하고, 신규·산발 피해지역은 단목방제와 소구역·소군락 모두배기, 예방나무주사를 병행해 확산을 막는다.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소나무림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드론과 지상

예찰 등을 활용한 정밀예찰을 강화해 감염 의심목을 조기에 발견·제거할 계획이다.

도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시군별 방제 전략과 현장 의견을 하반기 사업에 반영하고, 방제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내년에는 지역별 발생 특성과 확산 양상을 반영한 '전북 소나무재선충병 5개년 방제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전북도, 노인맞춤돌봄 전문성 강화

전북도는 지난 28일 완주경제센터에서 도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53명을 대상으로 '2026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에 대한 전담사회복지사의 이해와 실무 역량을 높여 퇴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노인의 돌봄 공백을 예방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연계·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는 병원 퇴원 이후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 자원과 연계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주요 내용은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의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연계 △노인인권 관련 법률 및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방법과 노인인권 보호에 필요한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앞으로도 제도와 돌봄환경 변화에 맞춰 전담사회복지사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고, 퇴원 이후에도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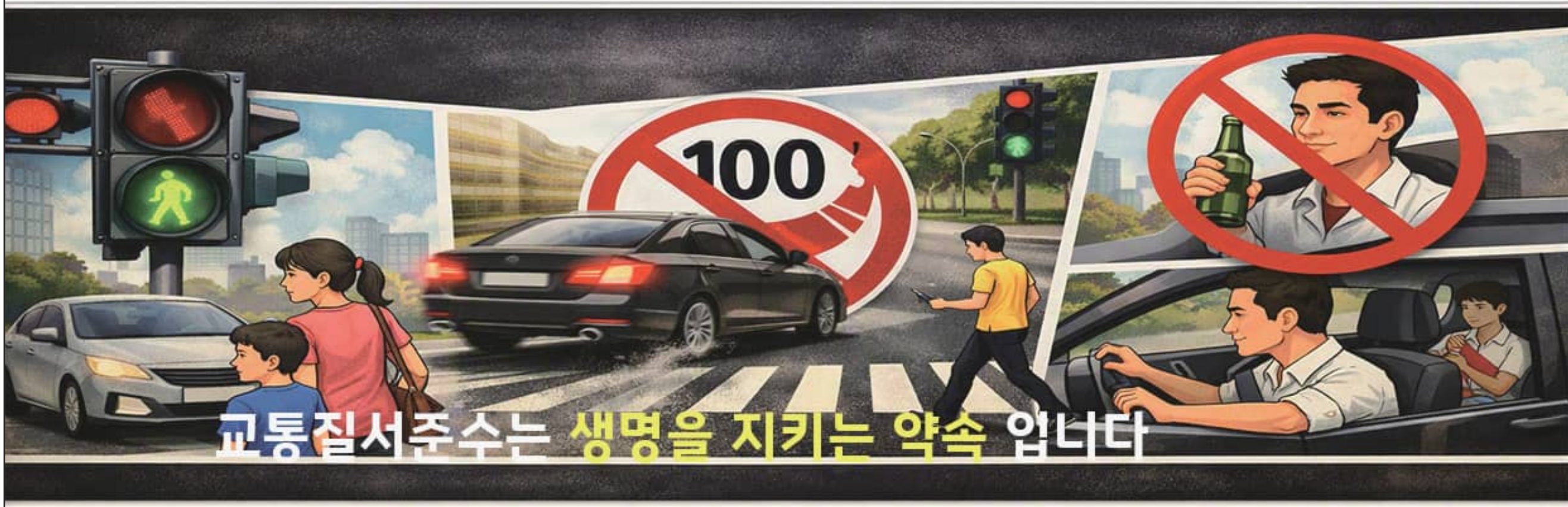
/김은지 기자

<본사 사령>

△ 사회부 부장대우 구경일

-2026년 9월 1일자-

빨리 가는 길보다, 안전한 길이 먼저입니다



국민연금, 상반기 기금적립금 1866조원

기금 운용수익률 27.22%… 국내 및 해외주식 실적 전체 수익률 견인

국민연금이 올해 상반기 27%대 기금 운용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 운용본부는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866조 원으로 늘고, 수익률은 27.22%(금액가중수익률)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자산군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국내 주식 107.37%, 해외주식 17.81%, 국내 채권 3.00%, 해외채권 9.22%, 대체투자 9.60%로 각각 나타났다.

국내주식은 중동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된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견고

한 실적 등으로 세 자릿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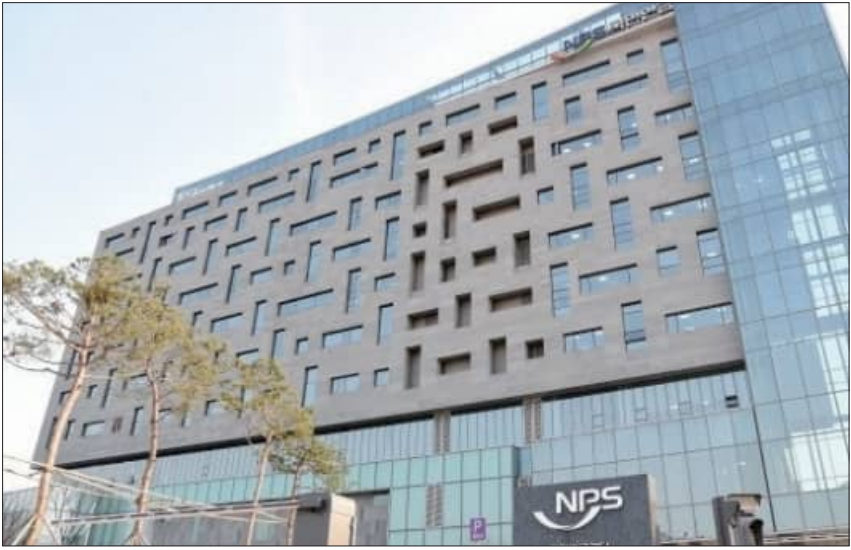
해외주식도 AI 투자 사이클 지속, 기술주 중심의 견고한 실적 등으로 상승했다.

국내 및 해외채권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등으로 금리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 채권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른 평가가치 하락으로 수익률이 하락했고, 해외채권은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상반기에는 국내외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들어 높은 변동성으로 수익률의 일부 변동이 있지만 여전히 양호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앞으로도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6년 6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866조 원으로 늘고, 수익률은 27.22%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분산투자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올해도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체투자자산 수익률은 이자·

전북도시재생 ‘지속가능한 재생모델’ 모색

빈집·유휴공간 재생부터 청년정착 주민조직 운영까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전북개발공사)는 2026년 도시재생 직무역량 특화과정(2차)을 운영했다고 지난 지난 28일 밝혔다.

특화과정(2차) 운영은 도내 시·군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해 빈집과 유휴공간을 청년 정착과 창업,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한 사례를 살펴봤다.

첫째 날 방문한 강진 병영면은 도시재생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연계해 빈집을 마을호텔로 정비하고, 조성된 일부 공간을 활용해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인 ‘4도 3촌 병영스테이’를 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폐양곡창고는 하

멜양조장으로 재생하고 병영시장 유휴장옥에는 청년 창업공간을 마련하는 등 기존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더했다.

특히 ‘4도 3촌 병영스테이’ 등을 통해 지역살이를 경험한 청년들이 병영면에 정착해 레스토랑과 디자인 소품점을 운영하면서 빈집재생과 체류 프로그램이 새로운 주민과 일자리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날에는 강진을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청년 창업·교류 공간 ‘가게, 유이사이드’를 방문했다. 이정민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대표는 공간을 안내한 뒤, 지역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상품을 공동으로 홍보·판매하고 주민과 교류하는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입고온 대표는 ‘4도 3촌 병영스테이’를 통해 강진살이를 경험한 뒤 병영시장 유휴장옥에 레스토랑을 창업하고 지역에 정착한 과정을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6년 도시재생 직무역량 특화과정을 운영했다고 지난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전북개발공사>

계자는 “이번 과정은 빈집과 유휴공간의 재생이 청년 정착과 창업, 주민조직의 운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확인한 자리”라며 “강진의 경험을 전북 각 지역

의 여건에 맞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진청-전북농협 ‘업무협력 협의체’ 추진상황 공유

“연구성과는 현장으로 협력성과는 농업인에게”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 농촌진흥청(청장 이돈승)은 28일 전북농협 6층 중회의실에서 ‘농촌진흥청-전북농협 업무협력 협의체’ 추진상황 공유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협력성과 점검 및 하반기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촌진흥청 및 전북농협 협력과제 담당 실무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협력과제의 추진실적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업무협력 과제 추진현황 보고 △우수사례 발표(저탄소 농업 기술 및 축산 종합컨설팅 분야) △지방 농촌진흥기관-지역농협 협력유형 조사결과 공유 △현장 이슈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양 기관은 과제별 이행 실적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영농현장에서 발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서간 실질적인 협업과 제도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의 우수 협력 모델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전북 농협현장에 접목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율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양 기관 실무진의 노력으로 전북농협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해,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농업 연구성과가 전북농협의 현장 인프라를 통해 도내 농업 현장 곳곳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인자위, 지역 수요 기반 인력양성 강화

6개 분야 심층 수요조사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이 운영하는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전북인자위)는 지난 28일 ‘2026년 제2차 분위원회’를 개최해 지역 산업 및 고용환경 변화 대응 위한 수요조사 추진현황과 인력양성·일자리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장 전북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여봉 원장을 비롯해 유희숙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산업계·노동계·유관기관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특히 2026년 인력·훈련 심층수요조사 6개 분야 △인력 및 훈련수급분석 △식품산업 △모빌리티 △미래신산업 △시청년 구직희망분야 및 취업연계 훈련 △취업연계사업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지역 산업현장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현재 인력 및 훈련 수급분석과 식품산업 연계협업형 조사는 조사를 완료하고 결과 활용 단계에 있다.

모빌리티·AI·청년·취업연계 분야는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2027년 신규·특화 훈련과정 발굴과 지역 인력양성 정책 및 일자리사업 기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6년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추진현황도 공유했다. 산대텍 사업은 AI 전환대응과 식품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지원대상 산업직종, 농생명바이오, 스마트 제조, 미래모빌리티 등 육성산업을 중심으로 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기초이음 프로젝트, 버팀이음 프로젝트, 전북형 중소기업 채용연계 직무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여봉 공동위원장은 “지역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인력과 훈련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요조사 결과에 실제 훈련과 일자리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산업계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인자위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수요조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인력 미스 매치를 해소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 전북 개막

전기안전대상 등 곳곳에서 전기안전 미래 모색

전기안전 분야 공적을 기리고 최신 기술과 현장 경험을 나누는 ‘2026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가 내달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주관으로 ‘전기안전 인공지능(AI)으로 가치를 높인다’ 주제로 마련됐다.

전기안전대상을 비롯한 8개 행사가 전북 곳곳에서 열리며, 전문가와 관계기관, 산업계가 전기안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올해는 전기안전공사 본사가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모든 행사가 열린다. 대규모 전기안전 행사와 무대를 지역으로 넓혀 지역과 함께 전기안전의 미래를 그려간다는 의미다.

행사 첫날 8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이 열린다. 전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는 자리로,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9일부터 11일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와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전북대학교 등에서 △재생에너지&이차전지 검사기술 세미나 △극제전기안전 세미나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전기설비검사기준(KESC) 기술세미나 △전력망-에너지저장 안전 연합 포럼(G-Safe) △사고조사 세미나 △전력설비 상태



<사진=전기안전공사>

관리 및 진단(PECMD) 세미나가 차례로 열린다.

전북대학교에서는 전기 분야 미래인재를 위한 채용 상담 부스도 운영하고, 전기안전공사 본사에서는 화재조사 포스터전을 열어 다양한 현장 사례와 기술을 소개한다. 이는 전문가 중심의 학술·기술행사를 넘어, 지역 청년과 시민들도 전기안전에 가까이에서 접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기 위해서다.

현장을 찾기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참여 기회도 마련한다. 전기안전대상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기후부 출입 기자단 펌투어를 통해 주요 행사와 현장을 소개한다.

이를 언론 보도로 확산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전북에서 시작된 소통과 교류가 우리나라 전기안전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기술혁신허브,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수소생산 탄소소재화 연구회 Kick-off회의 개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수소생산 탄소소재화 연구회 Kick-of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과제 기획에 착수했다.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연구회는 지역 이차전지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연구회는 지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규 R&BD 과제를 발굴·기획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Kick-off 회의에서는 ‘수소 생산부생 탄소의 고부가 탄소소재화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과제 기획 배경과 추진 필요성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및 연구개발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나눴다.

또 향후 연구회 운영방향과 위원별 역할을 공유하고, 이차전지 및 탄소소

재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바탕으로 과제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 연계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연구회는 단계적인 논의를 거쳐 과제 기획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북TP는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연구회 운영을 통해 지역 전략기술과 연계한 R&BD 신규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향후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R&D 기획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지역기술혁신허브 유지사업 총괄단장은 “이번 Kick-off 회의는 지역의 산업·기술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R&BD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과제 기획에 충실히 반영해 지역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기획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회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흥사회공헌재단, 소외계층 대학생 지원

8년여간 따뜻한 나눔

신흥사회공헌재단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소외계층 대학생에게 총 13억2천만원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신흥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장학사업이다. 사업에는 대학교 연계 직장신흥을 비롯해 총자산 350억원 미만 지역신흥, 종교단체신흥 등이 참여한다.

지역 신흥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직접 발굴·추천하고 신흥재단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총 116명 장학생을 선발해 9천7백만원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흥재단은 지난 2019년 군산, 거

제 등 고용·산업 위기 지역 거주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시작한 이후, 저소득 가정 대학생과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꾸준히 지원했다. 신흥재단은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457명의 소외계층 학생에게 13억2천만원 장학금을 전달했다.

고영철 신흥재단 이사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국 신흥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흥재단은 장학금 지원사업을 비롯해 소외계층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주거·문화 분야의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군산역전시장서 개최

군산시가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상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6년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내달 1일 오후 2시, 군산 역전종합시장 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개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와 JTTV전주방송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당초 5월 20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취소된 후 일정을 새롭게 정해 다시 마련됐다.

이번 시장가요제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노래자랑과 다양한 축하공연으로 진행되며, 개그맨 황기순의 사회로 흥겨운 분위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 오전 11시부터 현장 예식이 진행되며, 오후 2시 본선에서는 참가자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와 함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경품 추첨 행사도 마련돼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본선 무대 종료 후에는 전문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하며, 현장 효용도가 가장 높은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인기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가요제 참가 신청 및 행사 관련 문의는 군산역전종합시장상인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로 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덧밭 가꾸며 국가자격 준비” 정읍시, 도시농업관리사 모집

정읍시가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 취득을 돕는 92시간 양성과정의 교육생 20명 안팎을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

‘2026년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은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정읍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지난 26일 시작됐으며,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 농업인상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내달 14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정읍시농업기술센터와 지청 실습장에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도시농업의 기본 개념과 작물 재배 기술, 친환경 농사법, 원예 치유 등을 배운다.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방법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힐 예정이다.

전체 92시간 가운데 80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취득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은 농화학과 시설원예, 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다.

시는 교육을 마친 도시농업관리사들이 학교 텃밭과 도시농업공원, 원예 치유 활동 등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직원 ‘피지컬 AI’ 교육… 미래 대응력 높인다

익산시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을 키운다.

익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다목적실에서 공무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지금의 피지컬 AI 시대, 전북과 익산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산업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는 피지컬 AI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산업·사회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박승대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AI 정부수석이다. 박 수석은 피지컬 AI의 개념과 최신 기술 동향을 설명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과 사회의 변화, 전북과 익산이 준비해야 할 미래 전략 등을 공유했다.

특히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등 현실 세계에서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피지컬 AI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했다. 익산시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기술과 행정환경에 발맞춰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을 행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산업 확장

기업 3곳과 맞손 기술 역량 및 지역 산업 기반 연계 경쟁력 강화

익산시가 홀로그램 기업 3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산업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익산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레이브어스(대표 정지웅), ㈜엑스알피아(대표 권희정), ㈜어루커뮤니케이션(대표 유단희)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각 기업 대표, 최대규 전북디지털융합

센터장 등이 참석해 기업과 지역의 상호 협력을 통한 홀로그램 산업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은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과 사업 역량을 익산의 홀로그램 산업 기반과 연결해 기업 간 협업과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이브어스는 영상 제작과 미디어 아트 등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왔다. ㈜엑스알피아는 확장현실(XR) 기반 교육·체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어루커뮤니케이션은 홀로그램 디자인과 굿즈 개발 등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시는 그동안 홀로그램 기술개발과 실증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 기반을 꾸준히

히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제품이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와 투자유치, 시장 진출 등 기업 성장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기업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기업 간 기술·콘텐츠 연계를 활성화해 홀로그램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방침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익산 홀로그램 산업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익산의 산업 기반이 만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정읍, 농가 지원 확대 2(題)

군산시, 계절근로자 고용주 모집

군산시가 내달 11일까지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를 모집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에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촌지역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군산시는 2026년 상반기 96명, 하반기 31명 등 총 12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했다.

2027년부터는 기존 상·하반기 연 2회 신청 방식에서 연 1회 통합 신청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와 더불어 하반기에 인력이 필요한 농가도 반드시 이번

모집 기간에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2027년 상·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이 불가능하므로 희망 농가는 연간 재배 일정과 필요 인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빠짐없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는 모집 기간 내 군산시 농업정책과 농촌인력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농가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배정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입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등 원활한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가을농사 실습교육

정읍시는 지난 27일 ‘제재형 가족실습농장’ 텃밭에서 교육생 10가구를 대상으로 김장배추와 무를 직접 심어 보는 가을농사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상반기 기초 영농교육에 이어 계절별 농사 흐름에 맞춰 마련됐다. 교육생들이 가을철 주요 작물의 재배법을 익혀 정읍에 정착한 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뒀다. 교육생들은 먼저 김장배추와 무가 자라는 특성과 씨 뿌리기·모종 옮겨심기에 알맞은 시기와 방법, 병해충 예방법 등을 배웠다.

이어 텃밭으로 자리를 옮겨 직접 밭을 일구고 배추 모종을 심었다. 무 씨앗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몇 알씩 뿌리

며 이론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농사에 적용했다.

가을재소는 심는 깊이와 간격, 씨앗 트고 뿌리를 내리는 시기의 물 관리가 수확량을 좌우한다. 시는 농업 전문가가 작업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도하도록 해 초보 귀농인들이 흔히 겪는 재배 실패를 줄이고 실질적인 농사 기술을 익히도록 했다.

이학수 시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땀 흘리며 실습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작물별 씨 뿌리기와 수확 시기에 맞춘 실습교육을 꾸준히 지원해 귀농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고군산섬잇길’ 안전수칙 주의 당부

온열질환·탈진 잇따라

군산시가 지난 8일 개통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고군산섬잇길)’ 구간에 전국 각지의 트레커와 관광객이 대거 몰리는 가운데, 여름철 무더위 속 무리한 트레킹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고군산섬잇길은 서해의 절경을 감상하며 5개 섬(말도·보농도·명도·광대도·방축도)을 걸어서 건너는 국내 유일의 해상 인도교 연결 코스로, 개통 직후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폭발적인 입소문을 타며 평일에도 여객선 좌석이 매진되는 등 많은 인파가 방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미디어에서 가벼운 ‘해상 둘레길’이나 ‘평지 산책로’ 정도로

소개되면서, 평소 운동량이 적은 일반 관광객과 고령층이 충분한 준비 없이 방문했다가 탈진하거나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섬 지역 특유의 강한 직사광선, 높은 습도가 겹치면서 체력 저하와 탈진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군산시는 안전한 고군산섬잇길 탐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탐방객은 고군산섬잇길이 단순 산책로가 아닌 가파른 계단이 연속되는 고난도 등산로임을 인지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슬리퍼, 샌들, 구두 등 보행에 부적합한 신발 착용은 절대 삼가야 하며, 접지력이 우수

한 등산화·트레킹화, 등산스틱, 쉘이 넓은 모자, 쿨토시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폭염 시간대에는 무리한 산행을 자제해야 한다.

산행 중 어지럼증이나 호흡 곤란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그늘에서 휴식한 뒤, 도선(배) 시간을 확인해 조기 회귀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군산섬잇길의 빼어난 해상 비경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시개통 기간 중 현장 안전 표지판 보강 및 응급 대처 체계를 더욱 강화해 탐방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환지정보 20만6715필지 공개

“밭품 대신 누리집에서”

정읍시가 오늘부터 경지정리와 토지구획정리로 바뀐 20만 6715필지의 옛 지번과 새 지번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지정보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환지정보는 정읍시 생활공간정보 누리집(webgis.jeongeup.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제공 항목은 정비 전·후 지번과 사업지구명, 사업 연도, 시행기관이다.

해당 토지의 ‘환지계획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화면 아래에 표시된 사업 시행기관에 문의해 기관별 절차에

따라 문서를 요청하면 된다.

환지는 경지정리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뒤 기존 토지 대신 새롭게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 전·후 지번은 토지 소유권이 바뀌거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그동안 시민들이 환지정보를 확인하려면 시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사업 시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옛 지번이 적힌 서류를 찾아야 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경지정리·토지구획정리 자료를 전산 자료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했다. 우선 1966년부터 1993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이 이뤄진 20만 4802필지와 2000년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 1913필지의 정보를 공개한다.

아직 전산 자료로 바꾸지 않은 1994년 이후 환지정보도 해마다 추가해 조회할 수 있는 연도와 필지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그동안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먼저 찾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사진=정읍시>

정읍시 “지역사회 안착까지 촘촘하게”

북한이탈주민 지원 논의

정읍시와 지역 관계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부터 취업과 자립까지 끊임 없이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시는 지난 27일 시청에서 정읍경찰서와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북하나센터 등이 참여한 ‘정읍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과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을 잊고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최조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취업 능력을 높이고 스스로 생활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회적응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유호연 부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지역 관계기관과 단체의 꾸준한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립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민선9기 공약 실천력 높인다

실무 중심 실행 역량 강화

익산시가 민선9기 공약을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8일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에서 ‘민선9기 공약 담당자 역량 강화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최정호 시장과 각 부서 공약업무 담당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강은 민선9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재 수립 중인 공약 실천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맡았다. 이광재 사무

총장은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의미를 시작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한 공약 수립 방법, 공약 실천계획 작성 방향, 이행평가 지표와 평가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시는 이번 특강 내용을 토대로 공약별 목표와 성과지표, 연차별 추진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공약은 시민과 맺은 약속인 만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실현돼야 한다”며 “각 부서에서는 목표와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책임감과 속도감을 갖고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농민회 창립 기념식’ 개최

농촌 발전 결의 다져

정읍시농민회(회장 한덕열)가 창립 37주년을 맞아 회원 300여 명과 지난 28일 발자취를 돌아보고 농민 권익 향상과 농촌 발전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농민회는 지난 28일 신대인실내체육관에서 ‘정읍시농민회 창립 37주년 기념식과 가족한마당’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도·시의원,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는 길놀이와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창립선언문 낭독과 농민의례, 대화사와 격려사, 축사,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가족한마당에서는 바쁜 농사일로 지친 회원들이 잠시 일손을 내려놓고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회원들은 지난

37년간 정읍 농업을 지켜온 선배 농민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농민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한덕열 회장은 “3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읍 농업을 지켜온 선배 농민들의 노력과 회원들의 연대가 오늘의 농민회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농촌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한 해 한 해 농업현장을 지키며 정읍 농업을 이끌어온 농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 부담을 덜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고향사랑기부 동참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서기수)는 지난 28일, 지사장을 포함한 직원 30명이 뜻을 모아 군산시에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군산지사는 지난 2024년부터 매년 300만 원씩 기부를 이어오며, 3년간 총 9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농지은행 및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는 한편, 농가 일손 돕기와 저수지 환경정화 활동 등 농어촌 발전과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서기수 군산지사는 “이번 기부가 군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농어촌에 힘이 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재준 군산시장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군산시를 응원해 주신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부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고, 나눔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 2(題)

희망나눔캠페인 ‘최우수’ 선정

고창군이 지난 27일 전주 치명자산성지에서 열린 ‘2026년 희망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고창군은 2024년부터 2년 연속 희망나눔캠페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한 단계 더 높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사회 나눔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올해 캠페인에서는 당초 목표액 3억원 대비 7억900만원을 모금해 236%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군민과 관내 기관·단체, 기업,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눔 실천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다.

또한 이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서영자(고창읍)씨, 새고창장제식장 조미영대표, 님프란 박재열 대표, 한결영농조합법인 박종대 대표 등 4명의 유공자도 전

‘위기가구 먹거리 지원’ 추진

고창군이 갑작스러운 위기로 식료품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필요한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냥드림’ 사업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당장 식료품과 생필품이 필요한 군민에게 소득기준이나 복잡한 선정절차 없이 기본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매주 화·수·목요일 오후 2~5시 옛 보훈회관 1층(고창읍 성산로 61)에서 운영된다. 하루 30개의 물품 꾸러미가 지원되며, 이용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갑작스러운 생계위기 등으로 당장 식료품 등이 필요한 고창군민으로, 별도의 소득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1인당 기본 먹

김제시,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급

신청농가 1,852명에 5억 6천만원 지원

김제시는 지난 28일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신청농가 1,852명에게 총 5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보리·밀 수확 후 발생하는 보릿대, 밀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에 환원한 농가에는 ha당 20만원, 조사료·축산갈게 등으로 활용한 농가에는 ha당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5월부터 6월까지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했으며, 7월에는 농업인별 최종 결과를 확정하는 등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 사업 신청면적은 3,566ha로 지난해보다 659ha 증가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보여줬다.

또한 보리, 밀 등 식량지급률 제고와 논 이용률 향상 등 정부의 전략작물 육성정책에도 적극 부응하는 성과를 거뒀다.

일부 농가에서는 부산물 수거의 번거로움, 이모작 준비, 병해충 예방 등의 이유로 관행적인 소각을 실시하기도 하지만,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각종

부안군 ‘농촌왕진버스’ 의료 공백 해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건강한 기본사회 실현

부안군은 지난 27일 부안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부안읍·주산면·동진면·백산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다섯 번째 농촌왕진버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 농업인 등을 직접 찾아가 양·한방 진료, 치과·안과 진단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안군은 관내 농협과 협력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5회차 농촌왕진버스는 남부안농협·계화농협·부안중앙농협·하서농협과 함께한 앞선 네 차례 운영에 이어 진행됐으며, 부안읍·주산면·동진면·백산면 지역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이날 현장에는 대한의료봉사회,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다비치 안경원 등 3개 전문 기관의 의료진과 봉사단이 합계 참여했다.

이들은 분야별 맞춤형 진료와 검진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군은 앞으로 변산면·위도면 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농촌왕진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농촌왕진버스는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농촌 주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진료와 검진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군민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본격 윤곽 드러나

참여부스 모집 완료 품평한 심사로 품질 강화

대한민국 대표 농경문화 축제인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가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 부스모집을 마듭지으며 본격적인 축제 윤곽을 드러냈다.

김제시는 지난 28일 축제장 일원을 채울 향토음식, 농특산품 판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 부스 등에 대한 참여자 모집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스 운영자

모집과 선정에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

올해도 관내 소상공인과 농가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메뉴와 가격 적정성 등을 검증해 바가지요금 없는 착한 축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남은 한 달간 부스 운영자 친절·위생·안전 교육, 시설 설치, 교통 및 주차 대책 수립 등 현장 운영 체계를 집중 정비할 방침으로, 늦더위와 가을장마 등 기상 변수에 대비한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부스 모집 완료로 제2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성공적 개최

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됐다”며, “지평선 축제*가 관광객에게는 최고의 가을 추억을 선물하고,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 줄포면 주요 사업 점검

방상윤 부군수, 현장행정

부안군은 방상윤 부군수가 지난 28일 줄포면 일원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 강화와 유사·중복사업 조정을 위한 현장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줄포면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을 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 간 연계와 조정을 통해 재정투자자의 효율성과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 부군수는 갯벌치유센터에서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관련 부서 간 토론을 통해 사업 간 연계방안과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한 뒤, 줄포 갯벌생태관·위케어이션센터, 갯벌식생복원사업, 친환경에너지타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방상윤 부군수

현장 여건을 살피고 사업 간 연계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갯벌·치유·관광·도시재생 등

각 사업의 특성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유사·중복 요소는 사전에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

방상윤 부군수는 “개별사업에 머물지 않고 줄포의 미래라는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사업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복투자는 최소화하고 사업별 강점은 극대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 인공암벽장, 생활체육 명소 ‘눈길’

입장료·장비 대여료 무료

고창군이 ‘고창 인공암벽장’을 군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성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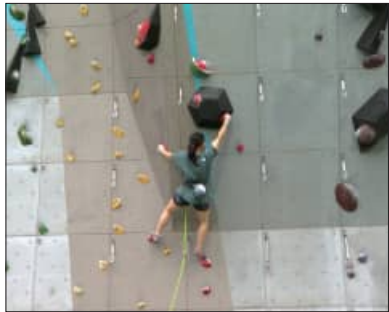
지난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매주 수·금 ‘고창 인공암벽장’을 저녁 10시까지 개방한다. 암벽장 앞 잔디밭 공간을 활용한 ‘가족과 함께하는 별빛 클라이밍 캠프’도 새롭게 선보인다.

별빛 클라이밍 캠프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진행된다. 군민 누구나 가벼운 돗자리나 원터치 텐트를 펼치고 직접 준비해 온 도시락, 치킨 등의 간식을 즐기며 편안하게 쉴 수 있다.

부모가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고, 자녀들은 관리자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안전하게 클라이밍을 체험할 수 있다.

퇴근 후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연인들의 건전한 데이트코스는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가을밤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고창 인공암벽장은 국제 규격의 야외 리드벽(32m)과 스피드벽(16m), 그리고 초보자도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사진=고창군>

즐길 수 있는 실내 연습장을 두루 갖춘 체육 시설이다.

특히 민간 시설과 달리 입장료와 필수 기초 장비 대여료가 전액 무료로 제공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현장에는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2명이 상시 배치돼 있어, 초보자나 혼자 방문하는 군민들도 참여자 대상 클라이밍 기초훈련과 로프 및 매듭교육을 받으며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다.

윤병준 고창군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은 “새롭게 운영되는 별빛 클라이밍 캠프를 통해 많은 군민들이 클라이밍의 매력에 빠지고, 잔디밭 야간 피크닉으로 가족 간의 건강한 힐링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안내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부안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용이 발생한 857필지에 대한 m당 가격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부안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안군 홈페이지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안군은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 토지특성 재조사와 인근 토지와와의 균형 여부 등 지가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되며,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간부공무원 리더십 역량강화

민선 9기 고창군이 지난 28~29일 자매결연 도시인 경북 상주시 일원에서 “2026년 고창군 리더십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군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간부공무원 79명이 참여했다. 관리자 역할에 대한 인식과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실천 중심의 소통·서비스 역량 제고를 목표로 추진됐다.

첫날에는 주무팀장들의 공약사업 사업별 추진상황 및 계획 보고를 시 작으로, 군수와 군장의 공약사업 최종강령을 통해 주요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둘째 날에는 한국한복진흥원과 명주박물관 등 상주시 주요 문화시설을 탐방하는 현장학습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운영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지역 명소 운영 전략을 벤치마킹하며 고창군의 지역문화 및 관광자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관리자이자 조직의 리더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국민신문고 제안 반영 ‘지팡이 거치대’ 설치

김제시는 지난 28일 국민신문고 제안을 통해 접수된 시민의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본청 민원실에 ‘지팡이 거치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지팡이 이용자들의 지팡이로 인해 보행 시 걸림문제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제안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시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접수된 시민의 개선 건의를 적극 검토한 끝에 민원실 전창구에 맞춤형 지팡이 거치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설치된 거치대는 이용객들이 민원 서류 작성대나 대기석을 이용할 때 가장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배치돼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관주도의 일방적 행정 이 아니라, 시민이 찾아온 일상 속 불편을 시가 신속하게 정책으로 구현해 낸 ‘상향식 소통 행정’의 사례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나간 한 사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지팡이 거치대 설치는 크고 거창한 사업은 아닐지라도, 민원실을 찾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불편을 헤아리려는 시의 진심 어린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제안을 시정의 밑거름으로 삼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폭넓은 민원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문해교육 전국 무대 빛났다… 전북 대표 수업 시연

부안군은 군 문해교사들이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와 전국문해교사대회에서 노래와 수업으로 부안 문해교육의 저력을 알리며 뜻깊은 활약을 펼쳤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7일 열린 신기한 노래자랑 본선 경연에 앞서 전국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참가팀 공모가 진행됐으며 50여개팀이 신청했다. 치열한 공모 심사를 거쳐 단6개팀만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됐으며 군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군 문해교사들은 본선 무대에서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전국 참가자들의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 28일 열린 전국문해교사대회에서는 개막 축하공연에 공식 초청돼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특히 이날 군 조재호 문해교사는 전북을 대표해 실제 문해교육 현장의 경험을 담은 수업을 시연했다. 학습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업 진행과 현장 중심의 교수법을 전국 문해교사들과 나누며 군 문해교육의 전문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교실에서 피어난 작은 변화들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문해교사와 학습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청소년 문화 축제’ 성황 “청소년 꿈 적극 지원할 것”

김제시는 지난 28일 시민문화체육공원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김제시교육지원청과 처음으로 공동주관해 ‘2026년 김제시 청소년 문화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번 축제는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지평선 너머, 꿈 up! 미래 up!’이라는 슬로건 아래 관내 청소년과 가족 등 900여 명이 참석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장 내부에는 청소년들의 취향을 반영해 포토부스, 킥패드들기, 볼펜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공간을 마련한 ‘성장 ZONE’을 비롯, 진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진로진학 ZONE’, 다양한 먹거리가 마련된 야외 ‘푸드 트럭 ZONE’까지 알차게 구성돼 참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뿐만 아니라, 실내체육관 중앙무대에서는 관내 청소년들로 구성된 동아리들의 열정 가득한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활기를 더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지평선 너머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 CJ공장 멈춘다…지역경제 ‘비상’

10월 말 주요라인 가동 중단 남원시, 근무인원 지원 나서 공장 매각·임대 등 활용 검토

CJ제일제당 남원공장(공장장 이창용)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다.

남원공장은 오는 10월 말까지 주요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일부 포장라인은 11월 말까지 운영한다. 이후 약 2~3개월 동안 공장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이번 생산중단은 CJ제일제당 본사의 전국 사업장 구조조정에 따른 결정이다. 그동안 저온·냉장면 시장이 줄고 제품 판매가 부진해지면서 관련 사업의 적자가 이어지자 CJ제일제당은 올해 3월부터 회사 전체 사업을 점검하고 생산시설을 조정해 왔으며, 남원공장을도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회사 차원의 사업장 정리 대상에 포함됐다.

남원공장은 인월산업단지에 들어선

이후 면과 만두, 소스류 등을 생산해 왔으며, 공장 부지는 2만9,159㎡, 건물 면적은 2만3,334㎡이다.

현재 근무인원은 약 230명으로, 남원시에 주소를 둔 직원은 약 110명이며,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남원에서 생활하는 직원도 상당수다.

시는 지난 7월 남원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상황과 본사의 움직임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공장 생산중단이 지역 근로자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고, 남원공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남원공장의 생산중단 결정에 따라 시는 남원공장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근로자 고용대책, 시설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전환배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어려운 직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재취업 연계와 경제적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



다”고 전했다.

남원시는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직원들의 전환배치 여부와 지역 잔류 희망인원을 파악한 뒤 취업 상담, 구인기업 연계 등 맞춤형 고용지원을 추진한다. 공장시설이 장기간 비어 있지 않도록 활용 방안을 찾는다.

시는 공장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고, 다른 사업이나 생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CJ제일제당도 공장 유후화보다는 매각과 임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지역 건설업계 ‘수주 물꼬’

공공기관 찾아 협력방안 모색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요청

완주군이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활력 회복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군은 최근 관내 주요 공공기관을 방문해 각종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자재·장비·인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

업과학원, 우석대학교 등 관내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지역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완주군은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향후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내 자재·장비 및 인력을 우선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완주군은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하도급 비율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소통 체계를 다졌다.

군은 이번 공공기관 방문을 마중물 삼아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기반을 다각도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의 자재와 장비, 인력에서 지역 안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90% 이용료 차등 지원 민간조리원도 요건 충족시 대상

남원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인 ‘산후케어센터 다온’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분만일 기준 남원시 연속 거주기간에 따라 이용료의 50%에서 최대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이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예약이 확정된 이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나 대가 순번에 밀려 불가피하게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해 혜택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지원금은 산후건강관리쿠폰 2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최종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일반 시민의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는 35만 원(50%) △1년 이상은 49만 원(70%) △2년 이상 거주자는 63만 원(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남원시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자메일(nwbaby@korea.kr)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서식과 세부 지원 기준은 남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2026년 사업 기간 중 이미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자격검토 후 남원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출산 이후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산후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덜고 산모와 신생아가 보다 안심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성황’

11개 읍·면 600여명 참석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순창군이장단협의회(회장 김영)는 지난 28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제19회 순창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읍·면 이장과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순창군 11개 읍·면 이장과 가족을 비롯해 군수와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전 9시 체육경기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화합행사, 장기자랑,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이장 등



<사진=순창군>

에 대한 표창장과 감사패 수여가 진행됐으며, 대회사와 격려사, 축하 등을 통해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오후에는 행운권 추첨과 공연에 이어 11개 읍·면 팀이 참여하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김영 순창군이장단협의회장은 “이번

체육대회가 각 읍·면 이장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이장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공중위생업소 119곳 현장점검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실시 내달 23일까지 방문 조사

완주군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오는 9월 23일까지 숙박업·목욕업·세탁업 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는 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찹수헤인 올헤는 숙박업 75개소, 목욕업 13개소, 세탁업 31개소 총 119개소가 대상이며 현

장 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인으로 구성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권장사항 영역에 대해 평가표에 따라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들이 자율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업인 600명, 미래 재생농업 ‘한뿔’

순창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

순창군 농업인 학습단체 협의회가 주관한 ‘제23회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 특별교육’이 지난 27일 군민예술회관에서 회원 및 내빈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회원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재생농업 전문가 3명이 진행한 ‘기후변화와 재생농업’ 특별교육으로 시작했다. 교육에서는 급변하는 기후와 농업환경에 대응해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농업기술과 실천 방향을 함께 나누었다.

특별교육에 이어 고고장구 사전공연이 펼쳐지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진 개회식에서는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해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공식행사를 마친 뒤 참석자들은 순창군 장애인체육관으로 자리를 옮겨 오전과 함께 회원 간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화합 한마당’에서는 회원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권오상 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지역농업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의회, 조정수산업 활로 모색

스마트하우스태양광 접목등 논의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과 유이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 27일 완주조정수유통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조정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정수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오안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완주군 관계부서, 강상희 완주조정수협등조합 이사장, 박용현 전 이사장, 김학권 이사, 정명우 조정수유통센터장 등이 함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조정수유통센터 내 ICT 기반 스마트하우스 시설 구축과 조정수 생산에 입입형 태양광 발전을 접목하는 사업 등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장의 여건과 사업 가능성, 필요한 지원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조정수는 식재부터 출하까지 짧게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해 초



기 투자 후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자금력이 부족한 귀농인과 청년농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완주군, 의회, 조정수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각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사항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정수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유이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구 신정치안센터 신규 자활사업장 개소

캠코 지원…매머드커피 신정점

남원시는 지난 28일 유휴 국유재산인 구 신정치안센터(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조성한 ‘매머드커피 익스프레스 남원신정점’(남문로 269-1) 개소식을 개최했다.

남원시장, 시의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활사업의 새출발을 축하했으며,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김석환 총괄이사가 직접 참석해 개소의 의미를 더했다.

캠코는 2025년 구) 동충치안센터 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1천만 원을 기부한 데 이어, 올해도 구) 신정치안센터에 1천만 원을 기부하여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자

립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매머드커피’는 2021년 남원의료원(2층) 내 자활사업단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한 매출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이어오고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접근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양종모 남원시장은 “이번 창업은 자활기업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며 “창업을 위해 힘을 모태주신 캠코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자활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원시는 그동안 자활기업 5개소를 창업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실랜드 방갈로 신축 대가족 맞춤형 숙박공간 확충

순창군은 방갈로 신축공사를 통해 방문객 맞춤형 휴게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편안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치유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순창 실랜드는 본관을 비롯해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 250석 규모의 대강당, 50석 규모의 강의실, 구례·곡성·순창·담양 공동사무실 및 힐링 교육장, 세미나실, 건강휴양체험시설 등 총 18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신축 1동 101㎡ 규모로 추진된다. 기존 숙박시설은 대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시설공사를 통해 숙박공간을 확충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여 대가족 단위 방문객(8~10인)들도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방갈로 신축을 계기로 실랜드를 단순한 휴양시설을 넘어 치유와 휴식, 체험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치유관광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순창을 대표하는 치유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앞으로도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실랜드가 대표 치유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 한농연, 필리핀 미나시 찾아 농업기술·나눔 교류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회장 장상순)가 필리핀 현지에서 벼 재배 기술 전수 시범포를 조성하고 3년 연속 초등학교 봉사를 이어가며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내고 있다.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완주군연합회 임원 및 회원 12명은 필리핀 일로일로주 미나시를 찾아 농업기술 교류와 현지 농업연수, 학교 봉사활동 등을 펼쳤다.

연수단은 일로일로 주지사와 면담하고 미나시와 농업 협약을 맺었다. 이어 시범농지를 직접 답사해 현지 벼 재배 기술 전수 시범포를 조성하는 등 필리핀 농업인들과 영농기술 및 농업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농업 분야 교류뿐만 아니라 2024년부터 인연을 맺은 미나시의 바디양간(Bandiangan) 초등학교를 세 번째 찾았다. 회원들은 학교 환경 개선과 점심 식사 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과 한마당 잔치를 열어 자전거 경품을 나누는 등 아이들과 교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장상순 회장은 “농산물과 농업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완주 농업인의 역할을 높이고 국제간 민간 주도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청소년 흡연예방 숯품 공모전 개최

남원시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한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청소년 흡연예방 숯품(숯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와 흥미로운 영상 연출로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또래 간 자연스러운 금연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며, 관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금연 및 흡연예방, 금연과 관련된 내용으로 20~60초 이내의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참가자는 개인 소통누리방(SNS)이나 유튜브(YouTube) 계정에 업로드 한 후 남원시 누리집에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영상 파일과 함께 이메일(jiyeon0414@korea.kr)로 제출하면 되며,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점(30만원), 우수 2점(20만원), 장려 3점(각 10만원)으로 총 6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부상을 지급할 계획이며 선정된 작품은 각종 행사와 전광판 등 흡연예방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무주 머루와인 생산자협회 장학금 200만원 기부

무주 머루와인 생산자협회가 지난 28일 무주 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부해 훈훈함을 주고 있다.

이 자리에는 이수복 무주 머루와인 생산자협회장(애플린 대표)을 비롯해 협회 소속 이재국 덕유양조 대표, 주성규 붉은진주 대표, 조동희 샤프무주 대표, 정무균 산들벚 대표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수복 협회장은 “무주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꿈을 키워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라며 “무주의 이름을 걸고 생산하는 머루와인의 맛과 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지역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는 무주 머루와인 생산자협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부부에 크루즈 여행 선물

익산시는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전윤주)이 지역 장애인 부부들을 대상으로 ‘한계를 넘는 항해, 무장애 크루즈 여행’을 진행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여행은 고향 익산을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온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대표의 지정 후원으로 마련됐다. 평소 아동의 어려움 등으로 장거리나 해외여행의 기회가 부족했던 장애인 부부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됐다.

여행에 참여한 장애인 부부 7쌍 14명은 이날부터 9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과 대만을 오가는 크루즈에 탑승한다. 참가자들은 크루즈 선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여행지를 둘러보며 특별한 추억을 쌓는다.

전윤주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지역 사회의 따뜻한 후원이 장애인 부부들에게 평소 쉽게 경험하기 어려웠던 여행의 기회로 이어져 더욱 뜻깊다”며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서로에게 집중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 최기선 어르신, 아동 지원 1천만원 기탁

“아이들 웃음 가장 큰 행복 건강한 성장 위해 보탬”

부안군은 지난 28일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한 최기선(85세) 어르신과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은 권익현 부안군수, 최기선 어르신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어르신은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에 기탁된 1천만 원은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의 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이날 기탁식에서 어르신은 “과거 어려운 이웃과 아동을 보고 언젠가는 돕고자 했다”라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은 지난 28일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을 기탁한 최기선(85세) 어르신과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부안군>

완주 외국인 주민, 한국어능력시험 7명 전원 합격

외국인지원센터 수업 진행

완주군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한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응시자 7명 전원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합격하는 결실을 맺었다.

완주외국인지원센터는 지난 3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매주 삼례읍 완충지대에서 외국인 주민 대상 ‘찾아가는 한국어 수업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반’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9명

중 7명이 실제 시험에 응시해 1급 4명, 2급 3명으로 전원 합격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이 센터로 찾아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 생활권으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방식으로 추진했다.

단순한 생활 한국어를 넘어 시험 대비 체계적인 수업과 실제 응시까지 연계해 교육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한 외국인 주민은 “직접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까지 하게 되어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주 한철수 씨, 직접 채취한 벌꿀 50kg 기부

“어려운 이웃과 정 나누고 싶어”

무주군 무주읍에서 양봉업을 하는 한철수 씨가 직접 채취한 벌꿀 50kg(500g, 100병, 130만 원 상당)을 무주군에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철수 씨는 “무주의 맑고 깨끗한 자연이 준 소중한 선물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의 건강과 따뜻한 지역 분위

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군청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벌꿀은 한 씨가 직접 채취한 것으로 수확자 편의를 고려해 500g 단위로 개별 포장됐다.

한철수 씨는 2023년부터 벌꿀을 (총 200kg, 5백여만 원 상당)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남원 72세 문해학습자, 전국 시화전 ‘최우수상’

글을 통해 찾은 새로운 소동

남원시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6년 제15회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관내 문해 학습자 신O순(72세) 님이 최고상인 최우수상(금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해, 배움의 시간을 담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시화전에는 전국에서 총 20,569점의 작품이 출품

되어 엄격한 심사과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신O순 어르신의 작품 ‘내 이름을 찾았어요’는 뒤늦게 글을 배우며 느낀 배움의 환희와 세상과 소통하게 된 일상의 소중한 변화를 진솔한 글과 따뜻한 그림으로 풀어내 심사위원단과 국민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정하복 기자



고창 성내면, 어르신 가구 지하수 모터 교체 지원

고창군 성내면이 지난 27일 지하수 모터 고장으로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홀몸어르신 가구를 긴급 지원했다.

해당 어르신 가구는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 모터가 집안 전체의 물길을 담당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모터 고장으로 밤낮이는 물론 간단한 세면조차 불가능했던 어르신은 신속한 지원 덕분에 한시름 놓게 됐다.

이남례 성내면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일상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살피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 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내 경로당에 전기밥솥 나눔

김제시 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오석)가 지난 27일 관내 마을 경로당에 전기밥솥을 지원하며 지역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활동은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보다 편리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마을 경로당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서로의 안부를 살피며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공동생활에 도움이 되는 전기밥솥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강오석 주민자치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더욱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숙영 백산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一事一言〉



‘늦었지만 환영한다’... ‘원팀’ 결집이 보여줘야 할 전북의 반전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지역 국회의원들이 마침내 국회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2차 공공기관 전북 배치와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역동적인 결집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에는 안도와 기대가 교차한다. 그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빈번히 실리를 놓쳤던 안타까운 국면을 상기하면, 도정과 지역 정치권이 정파와 이해관계를 넘어 단일대오를 구축한 것은 분명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역의 사활이 걸린 거대 현안 앞에서 지도층이 제 목소리를 내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은 전북 발전의 최소 조건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이번 ‘원팀’ 결집이 일회성 정치적 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결실을 보이기 위해 주목해야 할 3가지 관점을 짚어본다.

첫째, ‘소 잃고 외양간’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제 역할을 다하는 정치’가 상시화되어야 한다.

도민들이 이번 원팀 결집을 반기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그동안의 공백 때문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가 수년간 표류하고, 남원 국립의전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공전하는 동안 지역 정

치권의 대응은 늘 한발 늦거나 파편화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낙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서야 소리를 높이는 형태는 더 이상 반복되어선 안 된다. 이번 정치권과 지자체의 공조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전북 현안을 국정 과제 상단에 상시로 배치하고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정·입법 공조 시스템의 정례화로 이어져야 한다. ‘원팀’은 선언이 아닌 실천적 시스템으로 고착되어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둘째, 단순 기관 수령을 넘어 ‘전북형 특화 산업과의 시너지’를 이끌어내는 정밀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공공기관 유치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어떤 기관이 내려와 기존의 산업 생태계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생사 존망이 갈린다.

전북이 요구해야 할 공공기관은 이미 기반이 구축된 연금 중심의 금융 인프라, 농생명 클러스터, 그리고 미래 첨단 및 재생에너지 산업과 연계된 핵심 알짜 기관이어야 한다.

국립의전원 역시 마찬가지다. 단순한 지역 의료기관 설립을 넘어 붕괴해 가는 지방 필수·공공의료 체계를 재건하고, 남원을 필두로 한 전북 동부권의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지역 완결형 모델’로 완성해 내야 한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쥐는 명확한 논리와 전략 없이 단순 분배

만을 요구한다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논리 싸움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셋째, 여·야와 지자체를 초월한 완벽한 ‘실행력’으로 도민의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평가받을 일이지만, 도민이 원하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순에 잡히는 결과’다. 이제 공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중앙부처의 정책 결정 테이블로 넘어갔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상임위 권한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관련 입법과 예산 확보를 밀어붙여야 하고,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행정 조직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정교한 설득 논리를 제공해야 한다. 도정과 정치권이 손을 맞잡았을 때 비로소 거대한 중앙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만 도민들의 환영은 비로소 단단한 신뢰로 바뀔 것이다.

전북의 지평을 바꿀 거대한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늦게나마 첫발을 댄 전북도정과 지역 정치권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며, 이만 결음이 전북의 대반전을 이끄는 위대한 이정표가 되기를 도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ㅣ 독자투고 ㅣ

준법 집회·시위, 자유와 책임이 함께 할 때 더 빛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그러나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집회·시위 역시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때 그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더욱 넓힐 수 있다.

준법 집회·시위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회적 약속이다. 신고된 범위와 시간을 준수하고, 비폭력을 원칙으로 하며, 과도한 소음이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집회 참가자의 권리를 지키는 동

시에 시민의 일상도 함께 보호하는 길이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전달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배려하는 집회문화야말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이다.

집회 참가자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지만, 인근 주민과 상인, 보행자에게는 평온한 일상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확성기·앰프 사용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확성기 등 사용시 소음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집회 신고 접수 단계부터 이를 안내하고 관련 규정 준수를 유도한다.

또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폭력이나 시설 파손, 심각한 교통 방해와 같은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로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주최자, 경찰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준법 집회시위는 자유를 제한하는 말이 아니라, 자유를 더욱 오래, 더욱 당당하게 지켜내기 위한 약속이다.

성숙한 준법 집회시위 문화가 우리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때,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김제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서은진

사 설

버려질 마일리지도 공공의 자산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소멸 위기에 놓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모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로 한 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행정 혁신이다. 특히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전북교육청은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약 489만 원 상당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모았다. 이를 항공사 마일리지 샵에서 휴지와 치약, 라면, 물티슈 등 생필품으로 바꿔 추석 전에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액만 놓고 보면 거대한 사업은 아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행정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출장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구입한 항공권을 통해 적립된다. 따라서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엄연히 공적 성격을 가진 자산이다.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항공권 구매나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하기 어렵고 퇴직 등으로 활용 기회를 잃으면서 사실상 버려지는 공적 자원이 됐다.

특히 교육청은 그동안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적 마일리지 기부 협조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올해 4월 행정안전부가 교육청까지 대상 기관을 확대하자 전북교육청은 발

빠르게 자체 계획을 세워 전국 최초의 기부 실적으로 연결했다. 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행정 이 아니라 제도가 열리자 곧바로 활용 방안을 찾아낸 적극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강제가 아닌 교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소멸할 마일리지를 그냥 버리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생필품으로 돌려준 것은 공직자의 청렴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행정 혁신이 반드시 거대한 예산과 새로운 조직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작은 남비 하나를 찾아내고, 버려지는 공공 자산을 국민에게 되돌리는 것 역시 훌륭한 혁신이다. 489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무심코 사라지던 공적 자산도 끝까지 챙기겠다는 행정의 자세가 중요하다.

전북교육청의 이번 시도가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공적 마일리지는 물론 각종 포인트와 적립금 등 기관 곳곳에서 소멸하고 있는 자산을 찾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전북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다른 교육청과 공공기관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단 한 톨의 가치라도 허투루 버려져서는 안 된다.

▲ 오늘의시

그대에게 / 김 남 주

당신은 나의 기다림
강 건너 나룻배 지그시 밀어 타고
오세요
한줄기 소낙비 몰고 오세요
당신은 나의 그리움
술발 사이 사이로 지는 잎새 쌓이거든
열두 겹 포근히 드러봐요 오세요

오세요 당신은 나의화로
눈 내려 젖는 녹기 전에 서둘러
가슴에 당신 가슴에 붙여 담고 오세요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가로질러 들란 그 흙에 새순 나거든
한아름 소식 안고 달려 오세요
당신은 나의 환희이니까요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해남출생. 1969년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합성’을 제작했다. 이 사건으로 1973년 구속되어 전남대에서 제적당했다. 출소 후 창작과 비평지에 ‘진혼가’, ‘젓터미’ 등 7편의 시를 발표했다.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등을 출간했다. 1994년 체장암으로 세상과 작별, 광주 망월동 5.18 묘역에 안장됐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8월 31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별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8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8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종이

플라스틱

빈병

JBT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대한민국 농업수도 김제, 과학으로 미래를 심다!

한여름 벌이 내리찍는 김제평야.

끝없이 펼쳐진 논과 밭은 여전히 풍요롭다. 하지만 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기후변화는 계절의 경계를 허물었고, 폭염과 집중호우는 일상이 됐다. 농자재 가격은 오르고, 소비자는 더 안전하고 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요구한다. 이제 농업은 더 이상 경험만으로 지을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토양 속 양분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벼의 품질은 어느 수준인지, 출하되는 농산물은 안전한지, 토양을 건강하게 만드는 미생물은 어떻게 활용할지, 우수한 종자는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지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관리해야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대한민국 농업수도 김제가 선택한 해답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토양검정실, 쌀품질관리실, 농산물안전분석실, 미생물사업소, 첨단농업종자사업소를 중심으로 과학영농 서비스를 운영하며, 생산의 시작인 종자부터 재배, 토양관리,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와 과학으로 뒷받침하는 미래농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 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농사를 오래 지은 농업인들은 흔히 “좋은 농사는 흙이 만든다”고 말한다. 하지만 흙의 상태는 눈으로는 알 수 없다.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은 농업인이 가져온 토양을 분석해 산도(pH),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칼륨·칼슘·마그네슘 등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작물별 맞춤형 시비 처방서를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만큼만 비료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면서 생산비는 줄이고, 토양환경은 살리며, 작물 생산성은 높이는 것이다.

과거에는 “많이 주면 더 잘 자란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과다 시비는 오히려 작물 생육을 떨어뜨리고 토양을 산성화시키며 불필요한 비용까지 발생시킨다. 토양검정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과학영농 서비스다.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은 최근 3년간(2023~2025년) 총 15,669점의 분석을 수행하며, 지역 농업의 기초 데이터 구축과 과학영농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친환경·GAP 인증, 대표필지 검정 등 주

토양검정부터 종자·품질·안전관리까지 데이터 기반 과학영농으로 경쟁력 강화



요 농업정책과 연계한 토양검정을 추진해 국가 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작물 재배 전 겉흙을 0.5cm~1cm 제거한 뒤, 15~20cm 깊이(과수원은 30~40cm)의 토양을 채취해야 한다. 채취한 토양은 음지에서 건조한 후 약 500g을 담아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지역농업개발관 1층 토양검정실에 제출하면 된다. 검정 결과는 약 2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 김제 쌀의 경쟁력은 수확 후에도 이어진다
대한민국 대표 쌀 생산지인 김제, 하지만 같은 품종이라도 품질은 재배관리와 토양, 기상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농업기술센터 쌀품질관리실에서는 수확한 벼와 쌀을 분석해 품질 특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다. 곡물성분분석기를 이용, 밥맛에 영향을 주는 쌀 단백질, 수분, 아밀로스 등을 측정하고 품위분석기로 쌀 완전립, 찌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등 다양한 품질 정보를 분석해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이는 다음 작기 재배기술 개선으로 이어진다.

농업인은 분석된 단백질 함량을 보고 질소 시비량을 조절할 수 있고 찌라기 함량을 통해 건조과정의 온도 조절방법을 개선할 수 있다. 수분 함량으로 보관상의 문제 등도 알 수 있다.

좋은 품질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생산부터 수확, 그리고 품질 분석까지 이어지는 과

학적인 관리가 김제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쌀품질관리실은 검정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북 유일한 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검정 인력·시설·장비, 품질관리기준 등 검정기관 지정을 받았다. 매년 1,000점 이상 정밀 분석으로 쌀 품질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쌀 유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소비자의 신뢰는 안전에서 시작된다
농산물의 가치는 맛과 품질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출하를 앞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분석 등을 실시해 농업인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하 전에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예방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가 안심하고 김제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분석실은 국비 5억원을 확보(총사업비 10억원)하여, 흥사동에 위치한 지평선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잔류농약 463종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장비 20여종을 구축하였다. 출하 전 사전잔류농약 분석을 원하는 농업인은 농

산물 시료 여러점을 골고루 채취해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방문하면 된다. 분석 결과는 20일 이내로 받아 볼 수 있다. 김제시 농산물이 학교급식, 로컬푸드, 가공센터 전판에서 신뢰받는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생산, 출하 지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미생물로 친환경 농업의 미래를 키우다!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토양과 작물 생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생물사업소에서는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을 활용한 복합균 388톤(3,873회 공급), 혼합균 76톤(4,353회 공급), 광합성균178톤(1,340회 공급), 발효사료 258톤(124회 공급) 총 900톤의 유용 미생물과 발효사료를 생산·공급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700여 농가의 친환경 재배 기반을 조성 지원하고 있다.

유용 미생물은 토양 속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작물 뿌리의 활력을 높이며, 토양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 친환경 재배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미생물을 꾸준히 활용한 농가에서는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고 작물 생육이 안정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가뭄 등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토양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생물사업소는 유용 미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통해 토양 건강하게 유지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 씨알 하나가 농업을 바꾼다

좋은 농산물은 좋은 종자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좋은 종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좋은 종자는 철저한 관리와 첨단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생산될 수 있다.

종자의 치명적인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감염된 씨감자는 수량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농가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종자사업소는 조직배양과 양액 분무재 재배 기술을 활용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 씨감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보급하고 있다.

첨단농업종자사업소는 바이러스 검정을 거쳐 선발된 건강한 모주를 조직배양으로 증식하고 있다. 증식된 묘는 양액재배 온실로 이식해 온

도, 습도, 양분 및 병해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씨감자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

과거 농업인들은 씨감자를 외부에서 구매하여 매년 많은 비용이 발생했지만, 현재는 첨단 농업종자사업소에서 생산한 씨감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000여 농가에게 분양하고 있으며, 매년 10억 원 이상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좋은 씨감자를 통해 건강한 감자를 생산하고 싶은 농업인은 매년 2월과 7월, 연 2회 신청을 받아 추진된다.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체 신청 농가 수에 따라 공급한다

■ 데이터가 농업의 경쟁력이 되다

기후변화는 농업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여건 속에서 경험만으로 농사를 짓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시는 토양검정, 쌀 품질관리, 농산물 안전성 분석은 물론 유용 미생물 공급과 우량 씨감자 생산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한 과학영농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영농은 불필요한 농자재 사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친환경 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의 핵심 전략이 되고 있다.

토양을 분석해 필요한 만큼 비료를 사용하고, 미생물로 토양의 건강을 회복하며, 우량 종자로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품질과 안전성까지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은 모두 하나의 데이터로 연결된다. 과학영농 서비스는 연구실 안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라 농업인의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쟁력을 만드는 기술이다.

■ 대한민국 농업수도 김제

과학은 더 이상 연구실 속 이야기가 아니다.

토양을 분석해 비료를 처방하고, 쌀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농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유용 미생물로 건강한 토양을 만들며, 우량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모든 과정은 농업인의 경쟁력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농업수도 김제는 넓은 평야 위에 과학을 더하며 미래농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생산의 출발점인 종자부터 토양관리, 친환경 재배,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까지 이어지는 과학영농 서비스는 경험과 기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며 김제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견인하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 정보

당신의 눈,

전북특별자치도의 힘

전북타임스

신속한 정보, 깊이 있는 분석, 공정한 보도

정확한 뉴-스를 **지금바로** 만나보세요!

구독문의: 063)282-9600~3

홈페이지 : www.jeonbuktimes.co.kr

K-Pop 센터
K-Pop 센터

스마트농장
스마트창구

스마트농장
스마트 문역

연세기지
역사사 투지

연북복지
진북맘 센터

연북복지
진북맘 센터

연북복지
진북맘 센터

연북복지
진북맘 센터

연북복지
진북맘 센터

연북복지
진북맘 센터